

Weekly Strategy

다음주 전략: 지연되는 Tapering, 회복 중인 경기방향성



Strategist **곽병열**
Tel. 368-6132
kbr87690@eugenefn.com

Junior Strategist **정동휴**
Tel. 368-6646
yes@eugenefn.com

Weekly Strategy는 다음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기업이익 발표, 기타 이벤트 등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 영향력을 가능하고자 작성했습니다. 중장기 전망과 달리 단기 이슈에 따른 증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美 10월 FOMC, 미-중의 제조경기 지표, 애플 등 국내외 어닝시즌 등이 핵심 변수**
(주간 KOSPI 예상밴드: 2,010~2,080pt)

다음주는 10월 FOMC, 미-중의 제조경기 지표, 애플 등 국내외 어닝시즌, 국내 산업활동동향 등이 주요 변수이다.

- 1) 미 연준의 Tapering 지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효과,
- 2) 미국-중국 제조경기의 회복국면 지속

등으로 KOSPI지수는 연중 고점 경신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순매수-주식형 펀드환매가 대치됨에 따라 펀드환매의 악영향이 낮은 펀드소외주인 소재, 산업재, 금융 업종이 여전히 수급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또한 해당 업종은 원화강세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타업종대비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호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 **美 10월 FOMC: Tapering 지연 유력**

10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개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섣달의 여파로 미국 노동부 및 상무부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됨에 Tapering 개시의 판단 자료도 부족하고, 섣달에 따른 일시적인 해고 및 정부 관급기관 수주 등에 차질 가능성도 우려되어 신뢰도 역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다음 FOMC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연말에는 다시 추가적인 정부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 관련한 노이즈가 재발할 우려가 상존하여 미 연준의 Tapering 연내 개시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 결과(10/18일)는 내년 3월 Tapering 개시가 유력한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연준의 Tapering 지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유동성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에는 연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Q13 어닝시즌: 미국은 양호하게 진행 vs. 한국은 신뢰도 테스트**

미국 어닝시즌은 현재(10/23일) S&P500 중 181개의 기업(진행률 36.3%)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반부로 이행 중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어닝시즌 초반 부진했으나, 현재는 68.5% 수준으로 동일기간 중 어닝서프라이즈 평균보다 양호한 흐름이 지속 중이다. 매출액 부문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는 반면, 비용절감에 의해 이익부문의 서프라이즈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3Q13 영업이익 전망치는 5주전 대비 -5.4% 하락하며 하향 조정 진행 중이다. 업종별로는 분석대상 26개 업종 중 제약바이오 업종 만이 5주전 대비 상승했다. 어닝시즌 초반 결과는 다소 부진한데, 중반으로 갈수록 낮아진 컨센서스의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주 전략: 지연되는 Tapering, 회복 중인 경기방향성

10월 FOMC, 미-중의 제조경기 지표, 애플 등 국내외 어닝시즌이 핵심 변수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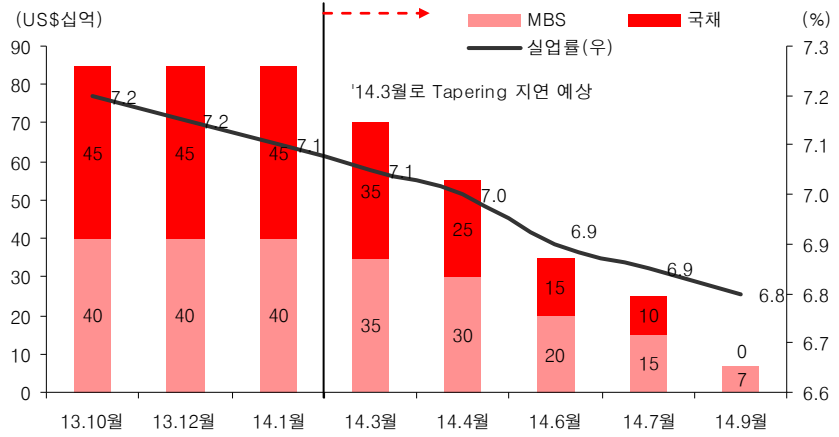
- (미국) 10월 FOMC (29~30일)

[Strategy Insight]

- (미국 10월 FOMC) 10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개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섣다른 여파로 미국 노동부 및 상무부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됨에 Tapering 개시의 판단 자료도 부족하고, 섣다른에 따른 일시적인 해고 및 정부 관급기관 수주 등에 차질도 있을 수 있어 신뢰도 역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다음 FOMC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연말에는 다시 추가적인 정부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 관련한 노이즈가 재발할 우려가 상존하여 미 연준의 Tapering 연내 개시는 어려울 것임. 또한 연준의장이 교체되는 1월은 정책변화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내년 3월 개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최근 블룸버그 조사 결과(10/18일)은 내년 3월 Tapering 개시가 유력한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있음 (도표 1 참조)
- 이러한 연준의 Tapering 지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유동성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에는 연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물론 Tapering 지연에 따른 원화강세도 나타나고 있으나, 금번 외국인매수는 중장기적 성격의 미국계가 중심이란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도표 2, 3 참조)
- (유럽의 신용지표) 유럽 신용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CDS프리미엄을 지수화한 iTraxx 지수는 전주 수준에서 등락하며 안정적 흐름 지속. 또한, 유럽 재정위기국 국채도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다만, 유럽 주요 은행 주가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앞두고 전주 대비 하락함. 한편, 자금시장의 조달금리를 나타내는 미국 Ted spread는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도표 4~7 참조)
- (결론) 다음주는 10월 FOMC, 미-중의 제조경기 지표, 애플 등 국내외 어닝시즌, 국내 산업활동동향 등이 주요 변수임. 1) 미 연준의 Tapering 지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효과, 2) 미국-중국 제조경기의 회복국면 지속 등으로 KOSPI지수는 연중 고점 경신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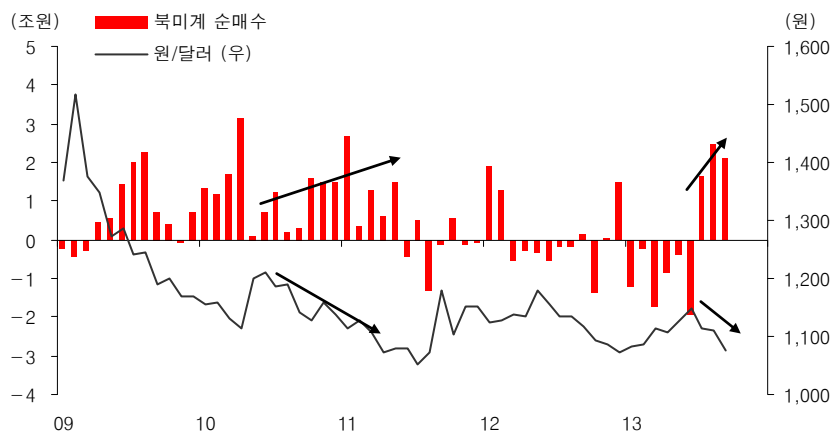


도표 1 블룸버그 Tapering 컨센서스: 내년 3월 개시로 지연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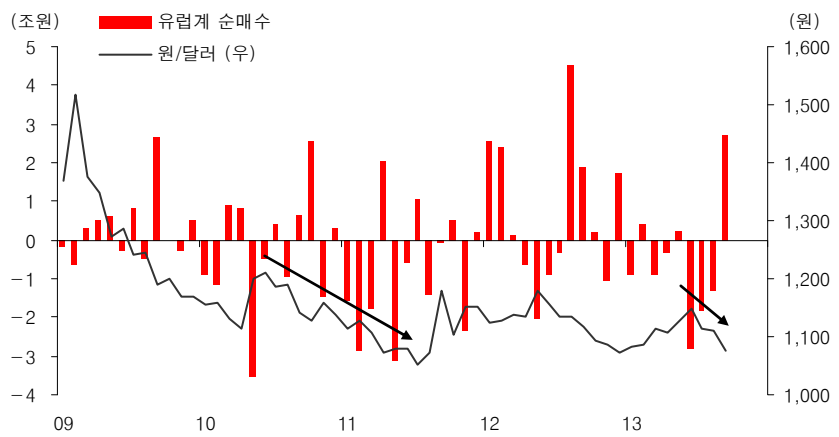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북미계 외국인순매수: 원화강세 국면에도 중장기적인 순매수 지속



자료: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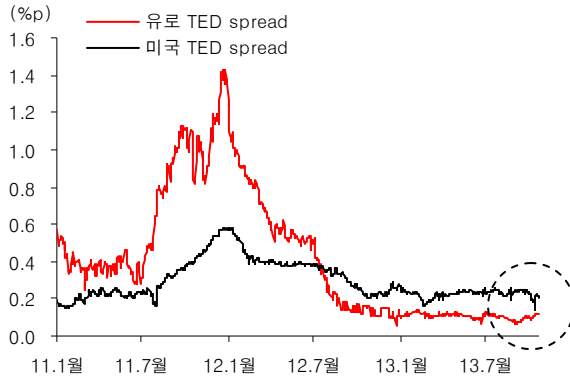
도표 3 유럽계 외국인순매수: 원화강세 국면에는 매도 대응



자료: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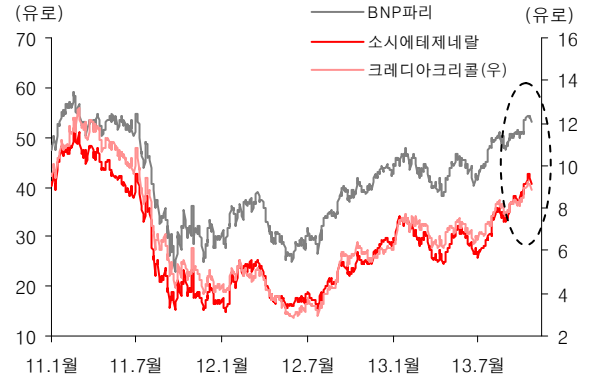


도표 4 TED 스프레드
: 미국 TED spread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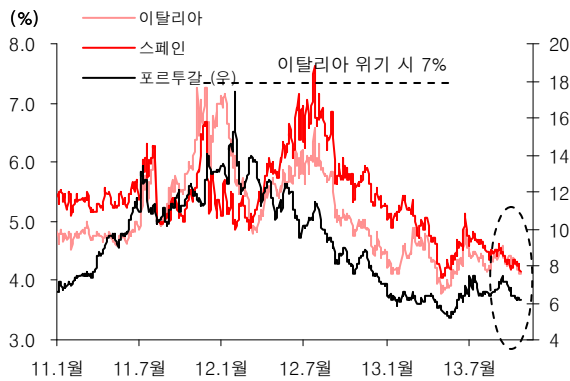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TED스프레드 = Libor 3개월물 - 국제 3개월물

도표 5 프랑스 주요은행 주가
: 전주 대비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유럽 재정위기국의 국채 10년물
: 전주 대비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7 iTraxx 지수
: 전주 수준 등락하며 안정적 흐름 지속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경제지표: 미국과 중국의 제조경기 방향성에 포커스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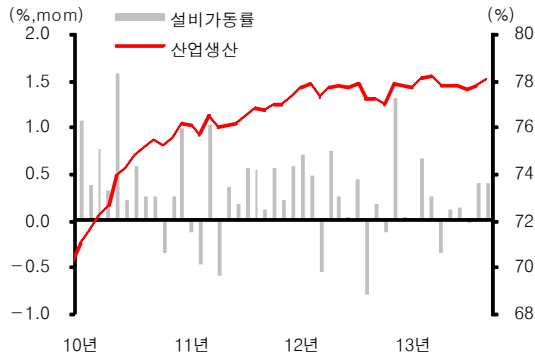
- (미국) 9월 산업생산, 9월 설비가동률, 9월 미결주택매매, 9월 월간 재정수지 (이상 28일)
9월 소매판매, 8월 케이스슬러주택가격지수,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이상 29일)
10월 ADP취업자변동 (30일)
- (중국) 10월 제조업PMI, 10월 HSBC 제조업PMI (이상 1일)
- (한국) 10월 수출/수입 (1일)

[Strategy Insight]

- (미국 산업생산) 9월 산업생산은 0.4%mom으로 전월 0.4%mom 수준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설비가동률은 78.0%로 전월 77.8% 대비 개선된 것으로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음. 전월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10월 이후는 미국 섯다운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도표 8 참조)
- (미국 소비지표)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76.0으로 전월 79.7 보다 부진한 것으로 예상. 역시 미국 섯다운으로 인해 소비심리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함. 10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표 잠정치가 75.2를 기록하며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함 (도표 9 참조)
- (미국 ISM제조업) 미국 경기방향성 예측에 섯행성을 나타내는 ISM제조업 지수의 10월 컨센서스는 55.1로 전월 56.2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예상됨. 다만, 6월 50.9를 시작으로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일 상회하며 미국 경기는 회복사이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함 (도표 10 참조)
- (중국 제조업PMI) 10월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제조업 PMI는 51.1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전월 51.1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예상됨.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 부담 등으로 중국 성장세 둔화 우려가 존재하나, 앞서 발표된 10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50.9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물류구매연합회 제조업 PMI의 전월 대비 상승 가능성을 높임 (도표 11 참조)
-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미국-유럽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전주 대비 하향 조정됨. 미국 섯다운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경제지표 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함. 또한, 중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도 전주 대비 하향됨. 한편, 지속 하락했던 일본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EM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반등함 (도표 12, 13 참조)
- (한국 경기섯행지수 순환변동치) 한국 경기섯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5개월 연속 상승세임. 경기회복 기준선인 100선을 3개월 상회 중인데, 과거사례를 참고하면 100선 돌파 후 평균 11개월간 상승세가 지속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2014년 중반까지는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경기섯행지수의 9개 구성항목 중 7개 이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Bottom out 중임. 이는 상승주기의 초기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20년간 1) 기준선(100p)을 초과하고, 2) 상승 사이클을 보인 경우는 총 6번이 관찰됨(평균 11개월간 지속). KOSPI의 방향성과도 상관관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방향성과 주가모멘텀과의 동조흐름이 2014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도표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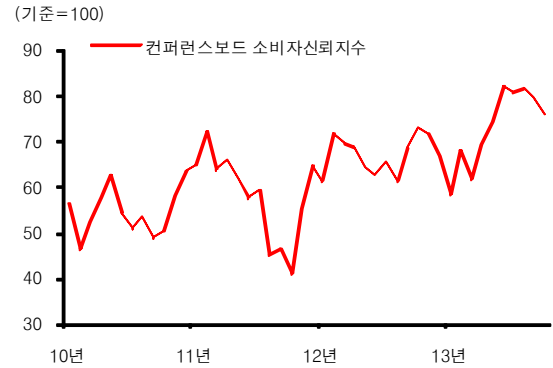


도표 8 산업생산, 설비가동률(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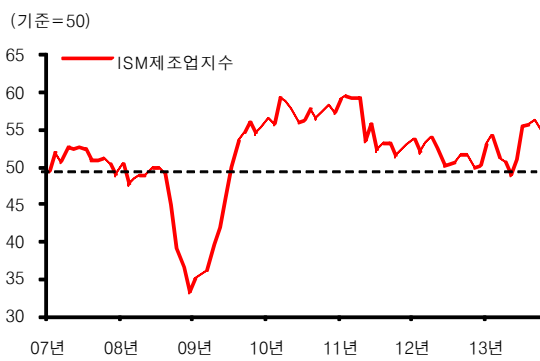
자료: 미 연준,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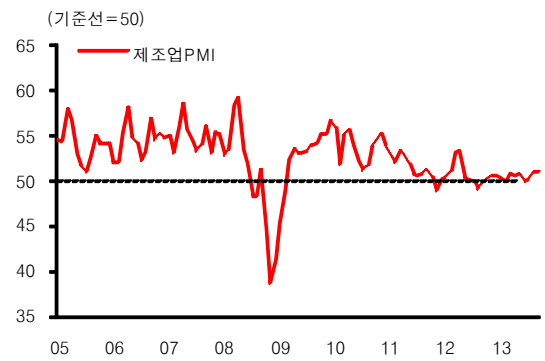
자료: 미 컨퍼런스보드,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미국 ISM제조업지수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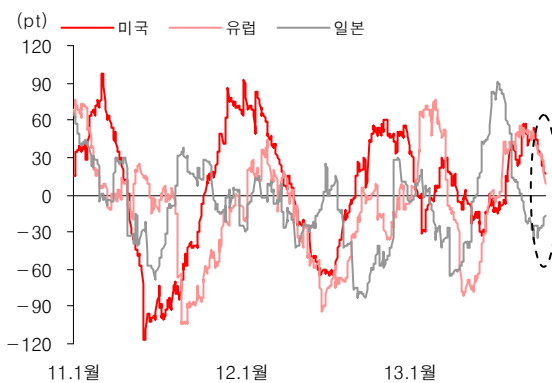
자료: 미 ISM,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중국 제조업PMI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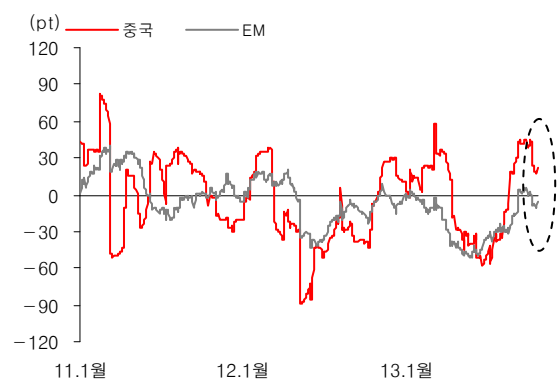
자료: 중 물류구매연합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선진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미국-유럽 하락, 일본 반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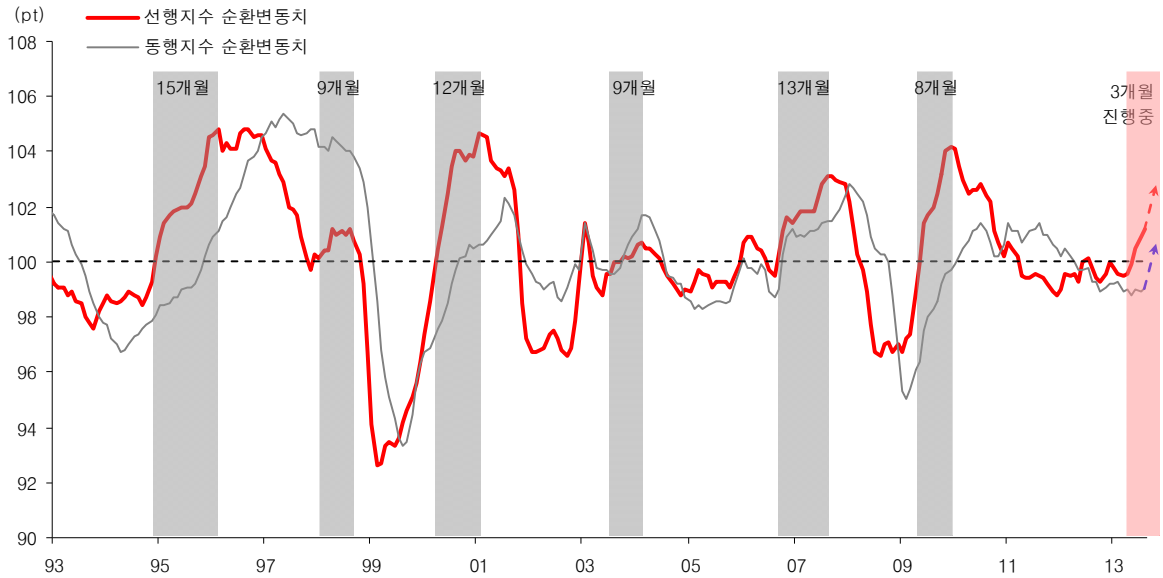
도표 13 신흥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중국 하락, EM 반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초중기 상승경기 진입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3Q13 어닝시즌: 미국은 양호하게 진행 vs. 한국은 신뢰도 테스트

[주요 일정]

- (미국) 애플, 머크 (이상 28일)
 페이스북 (30일)
 엑손모빌 (31일)
- (유럽) UBS, 도이치방크 (이상 29일)
 BNP파리바 (31일)
- (한국) 두산인프라코어 (28일)
 신한지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이상 29일)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상 25일)

[Strategy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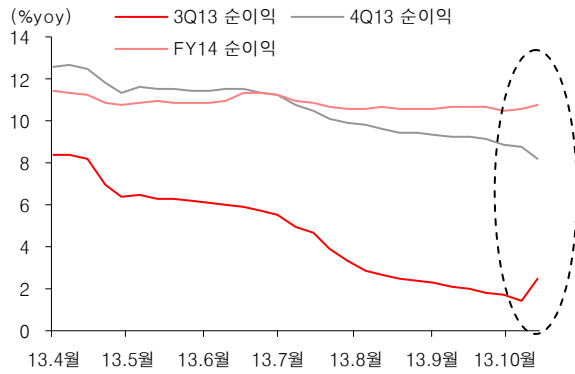
- (미국 3분기 및 연간실적 전망) 미국 S&P500 구성종목군의 3Q13 블룸버그 순이익 전망치(10/18일 기준)는 전년동기비 +2.5%(전주 +1.4%, 7월말 +3.9%)로 상향 조정됨. FY14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전년동기비 +10.8%(전주 +10.6%, 7월말 +10.7%)로 2주 연속 상향 조정됨. 다만, 4Q13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동기비 +8.2%(전주 +8.8%, 7월말 +10.1%)로 전주대비 하락함 (도표 15 참조)
- (미국 어닝시즌) 미국 어닝시즌은 현재(10/23일) S&P500 중 181개의 기업(진행률 36.3%)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반부로 이행 중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어닝시즌 초반 부진했으나, 현재는 68.5% 수준으로 동일기간 중 어닝서프라이즈 평균보다 양호한 흐름이 지속 중임. 매출액 부문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는 반면, 비용절감에 의해 이익부문의 서프라이즈는 이어지고 있음 (도표 20~24 참조)
- (국내 3Q13 실적전망) 국내 기업의 3Q13 영업이익 전망치는 5주전 대비 -5.4% 하락하며 하향 조정 진행 중임. 업종별로는 분석대상 26개 업종 중 제약바이오 업종 만이 5주전 대비 상승했음. 어닝시즌 초반 결과는 다소 부진한데, 중반으로 갈수록 낮아진 컨센서스의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도표 17 참조)

[Portfolio Idea]

- (미국 섹터) 세부업종별 3Q13 순이익 전망치(10/04일 기준)는 금융 5.4%(전주 -0.5%, 7월말 0.4%), 소재 2.9%(전주 1.6%, 7월말 5.7%), 산업재 5.7%(전주 5.4%, 7월말 6.8%), IT 2.5%(전주 1.7%, 7월말 2.6%)가 전주 대비 상승함. 반면, 에너지 -7.9%(전주 -5.3%, 7월말 1.8%), 경기소비재 6.2%(전주 6.3%, 7월말 10.2%) 등은 전주 대비 하락함 (도표 16 참조)
- (국내 섹터) 세부 업종별로는 5주전 대비 제약바이오(0.6%)가 상향 조정됨. 반면 정유(-15.9%), 증권(-19.0%), 유틸리티(-10.4%), 화학(-9.6%) 등은 부진한 하향 조정 영역에 머물러 있음 (도표 17~19 참조)
- (대응전략) 외국인 순매수-주식형 펀드환매가 대치됨에 따라 펀드환매의 악영향이 낮은 펀드소외주인 소재, 산업재, 금융 업종이 여전히 수급적으로 양호할 것임. 또한 해당 업종은 원화강세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타업종대비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호적으로 부각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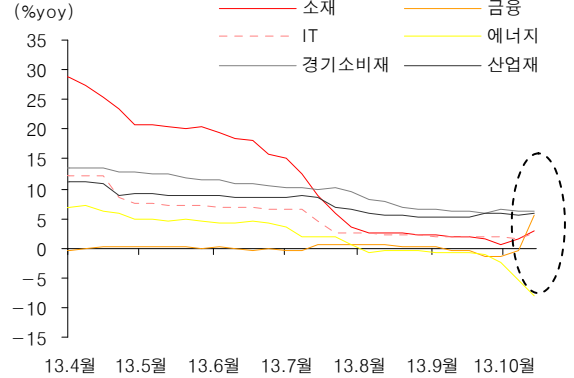


도표 15 미국 분기별 순이익의 전망
: 3Q13-FY14 전주 대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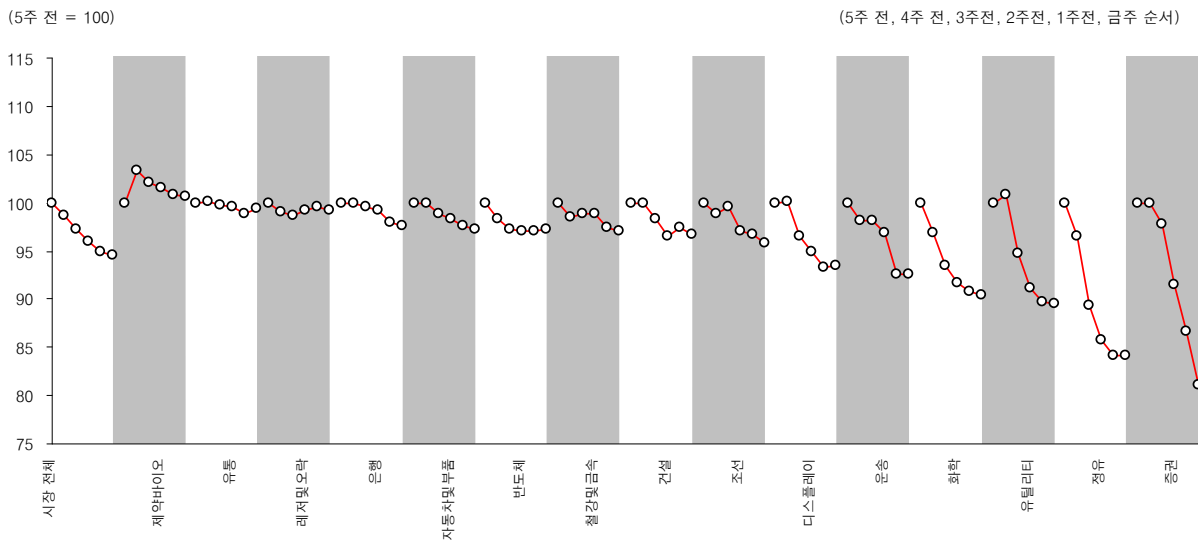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미국 3Q13 업종별 순이익의 전망
: 소재-에너지-IT-산업재 상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국내 3Q13 업종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 제약바이오 상황, 정유-증권 하향 조정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주: 유니버스는 KOSPI+KOSDAQ 시가총액 3,000억 이상이며 영업이익 추정치 3개 이상 존재하는 210개 종목으로 구성. 업종순서는 5주전대비 영업이익의 상향조정 기준



도표 18 3Q13 영업이익 추정치 Big Mover (상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3Q13 영업이익 (억원)			5주전 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71320	지역난방공사	KS	유틸리티	132	218	211	60.3%
A097230	한진중공업	KS	산업재	34	49	48	40.5%
A044490	태웅	KQ	산업재	21	21	26	21.4%
A051500	CJ프레시웨이	KQ	경기관련소비재	64	78	77	20.5%
A003690	코리안리	KS	금융	447	518	518	15.9%
A084870	베이직하우스	KS	경기관련소비재	17	19	19	12.8%
A011200	현대상선	KS	산업재	200	312	225	12.3%
A069620	대웅제약	KS	건강관리	193	207	217	12.3%
A001680	대상	KS	필수소비재	422	472	472	12.0%
A000060	메리츠화재	KS	금융	528	583	583	10.4%
A103140	풍산	KS	소재	328	356	360	9.7%
A014620	성광벤드	KQ	산업재	238	256	256	7.7%
A114090	GKL	KS	경기관련소비재	494	524	532	7.7%
A005830	동부화재	KS	금융	1,384	1,482	1,482	7.1%
A139130	DGB금융지주	KS	금융	986	1,052	1,052	6.8%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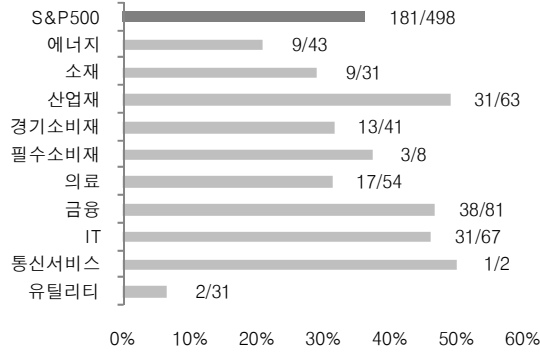
도표 19 3Q13 영업이익 추정치 Big Mover (하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3Q13 영업이익 (억원)			5주전 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KS	경기관련소비재	902	-220	-220	-124.4%
A001230	동국제강	KS	산업재	37	-6	-6	-115.4%
A006800	대우증권	KS	A006800	294	144	79	-73.3%
A078340	컴투스	KQ	A078340	33	17	17	-49.3%
A009520	포스코엠텍	KQ	A009520	63	55	32	-48.8%
A000120	CJ대한통운	KS	A000120	350	197	188	-46.3%
A020560	아시아나항공	KS	A020560	798	485	461	-42.3%
A010620	현대미포조선	KS	A010620	-300	-390	-425	-41.6%
A112040	위메이드	KQ	A112040	111	77	66	-40.8%
A117930	한진해운	KS	A117930	605	399	361	-40.3%
A034120	SBS	KS	A034120	196	122	122	-37.9%
A068870	LG생명과학	KS	A068870	55	34	34	-37.7%
A063080	게임빌	KQ	A063080	57	37	37	-34.6%
A031430	신세계인터넷내셔널	KS	A031430	46	31	32	-29.7%
A033630	SK브로드밴드	KQ	A033630	261	195	185	-29.0%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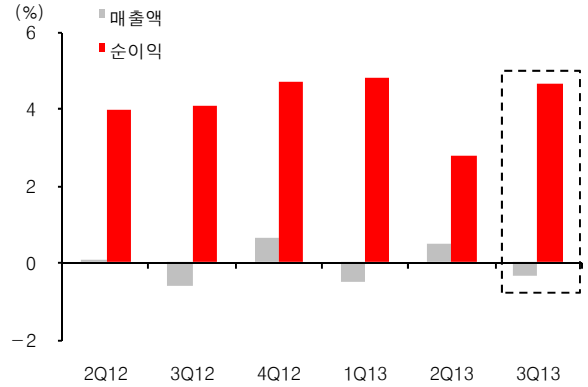


도표 20 미국 3Q13 기업 실적발표 진행률 : 어닝시즌 중반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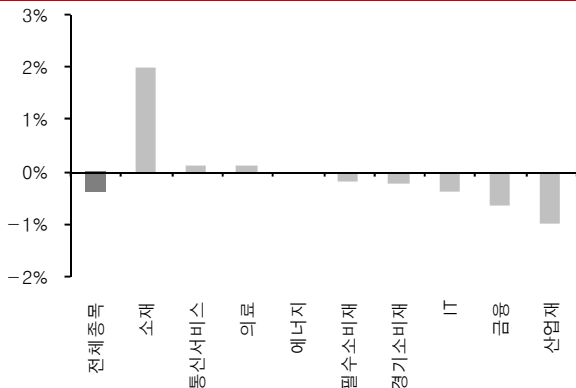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10/23일 기준임

도표 21 S&P500 분기별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 매출액 부진, 순이익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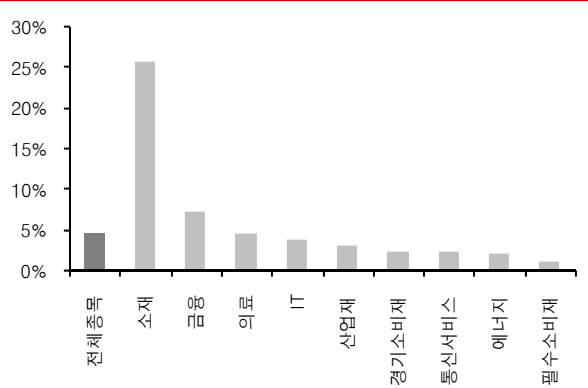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금액 기준. 예상실적 대비 실제 실적 상회율

도표 22 미국 업종별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매출) : 소재-통신서비스-의료 호실적 기록 중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매출 금액 기준. 예상실적 대비 실제 실적 상회율

도표 23 미국 업종별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순이익) : 소재-금융-의료 호실적 기록 중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순이익 금액 기준. 예상실적 대비 실제 실적 상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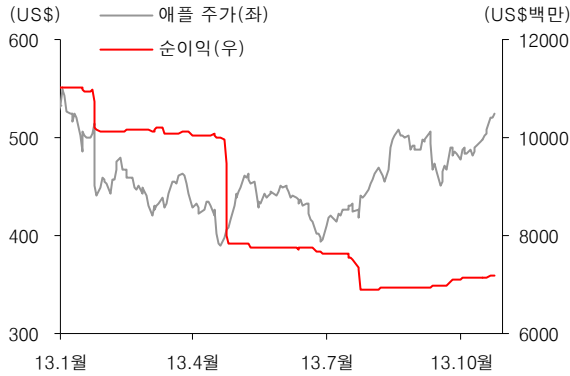
도표 24 분기별 미국기업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2분기 대비 호조

어닝시즌	2Q11	3Q11	4Q11	1Q12	2Q12	3Q12	4Q12	1Q13	2Q13	3Q13
1주차	71.4	70	51.9	80	61.5	55.6	68	70.8	66.7	59.1
2주차	73.9	66.7	60.3	77.9	65.3	64.8	62.8	65.6	65	61.3
3주차	75.2	70.6	59.9	76.1	67.1	60	66	69.3	66.2	68.5
4주차	71.8	69.8	59.7	68.8	66.9	63.4	67.4	69.9	67.6	
5주차	70.9	69.1	63.5	67.3	68.2	64.2	69.4	68	67.8	
6주차	70.8	69.5	64.2	67	68.1	64.6	68.5	67.4	67.3	
7주차	71.3	69.3	63.5	67.3	66.9	64.4	68.9	66.9	66.8	
8주차	71.4	69	62.9		66.5		68.8	66.8	66.8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기업수 기준. 전체 기업수 대비 예상치 상회한 기업수 비율임. 최근 수치는 10/2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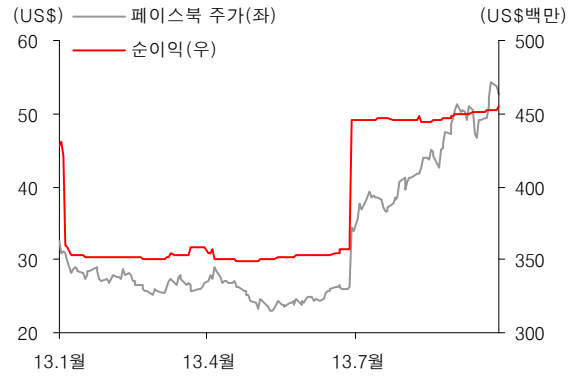


도표 25 애플 순이익 컨센서스(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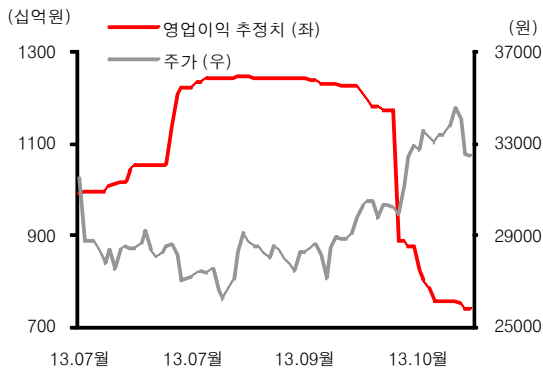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페이스북 순이익 컨센서스(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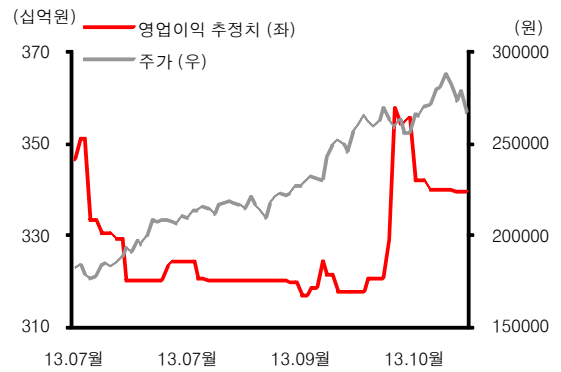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7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29일)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컨센서스(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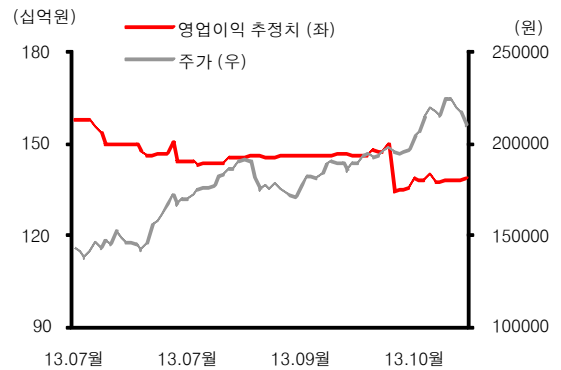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현대모비스 영업이익 컨센서스(31일)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롯데케미칼 영업이익 컨센서스(31일)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31 다음주 (10/28~11/01) 주목할 경제/증시 일정

	28일(월)	29일(화)	30일(수)	31일(목)	1일(금)
주요 경제지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9월 산업생산 (C: 0.4%mom, P: 0.4%mom) 미국 9월 설비가동률 (C: 78.0%, P: 77.8%) 미국 9월 미결주택매매 (C: -0.3%mom, P: -1.6%mom) 미국 9월 월간 재정수지 (C: \$67.0B, P: \$75.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9월 소매판매 (C: 0.1%mom, P: 0.2%mom) 미국 8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P: 0.62%mom)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C: 76.0, P: 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9월 산업생산 (P: 3.3%yoy) 미국 10월 ADP취업자변동 (C: 160Kmom, P: 166Km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0월 수출 (P: -1.5%yoy) 한국 10월 수입 (P: -3.6%yoy) 미국 10월 ISM 제조업지수 (C: 55.1, P: 56.2) 중국 10월 제조업 PMI (C: 51.1, P: 51.1) 중국 10월 HSBC 제조업 PMI (P: 50.2)
기업실적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크 (C: 0.874, P: 0.840) 애플 (C: 7.915, P: 7.470) 두산인프라코어 (C: 914, P: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BS (C: 0.246, P: 0.259) 도이치방크 (C: 0.693, P: 0.953) 신한지주 (C: 7,239, P: 7,434) SK하이닉스 (C: 7,386, P: 11,136) SK텔레콤 (C: 5,697, P: 5,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북 (C: 0.184, P: 0.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슨모빌 (C: 1.770, P: 1.550) BNP파리바 (C: 1.044, P: 1.324) 현대중공업 (C: 3,398, P: 2,890) 롯데케미칼 (C: 1,383, P: 696) 현대모비스 (C: 7,729, P: 7,332) 기아차 (C: 8,491, P: 11,264) 	
Macro & Market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0월 FO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러드 연준총재 연설

자료: Bloomberg, Quantwise, 각종 언론자료 취합

주: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임, C = 컨센서스, P = 전기(전월)치임. 밑줄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임. 미국 실적은 주당 순이익 기준(달러), 한국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억원)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어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20%이상 ~ +50%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이상 ~ +20%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미만